文 만난국회의장 "기관장처신, 공직사회 영향안줬으면"

오찬간담회서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겨냥 "대선 접어들면 국회·행정부 영향 가능성 있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30일 "기관 장들의 처신 문제가 우리 공직자 사회 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 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간담회에 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대선에 빨려 들어가서 국회나 행정부가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특정 기관장을 직접 언급 하지 않았지만 '기관장의 처신 문제' 는 최근 임기를 남기고 사퇴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 다. 최 전 원장은 야권 대권 후보로 분 류된다.

박 의장은 "민생문제, 코로나 극복 문제에 관해서 국회는 흔들림 없이 우 리의 일을 하자는 말씀을 방금 전 여 야 대표회담에서도 강조했다"며 "행정부에서도 공직자들의 자세와 마음 가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문 대통령이 지 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이번 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유럽순 방 성과를 설명한 것에 대해 "미국 그 리고 영국 순방에서 국격을 높여주신 데에서 저희들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완전히 조율하는 뜻 깊은 회담이었고 또 한미동맹에 대해서 비판하고 의심 했던 분들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헌법기관장들도 대통령의 미국과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순방 성과에 대해 "뿌듯하기도 하고 무척 기쁘다"며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훌륭한 대처를 해왔다는 평가를 안팎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나라 가 당면한 현안만 생각하는 좁은 시 야를 벗어나서 세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국제 협력을 이끌 수 있는 국가가 돼서 뿌 듯하다"면서 "앞으로 국가기관들과 국민들 모두가 각자 영역에서 선도 국 가에 걸맞은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해 본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면서도 "1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병석 국회의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년 반 마스크를 쓰고 협조해 주신 국 민들조차도 조금씩 지쳐 계셔서 이걸 어떻게 이 분들에게 일상을 빨리 되돌 려드릴 수 있느냐가 모든 관건"이라 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자라는 많은 의 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회복이 온 국민이 함께 코로나를 이기는 성과 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손 잡은' 정세균·이광재 내일 나란히 광주행…메시지 주목

공동 5·18묘역 참배·당원 접촉 '여권 심장부' 공략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

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오는 2일 여

권의 심장부 광주를 방문, 민심잡기에

6월 30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광주로

내려와 국립 5·18민주묘지를 공동으

로 참배한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후

보 단일화에 대한 입장 등을 통해 텃

이어 이들은 광주지역 당원들과 접

밭 민심에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선다.

촉할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 단일화 선언 이후 처음으로 여권의 최대 지지기 반인 광주에서 두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낮은 지지율 만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6월 29일 단일화 후 첫 공동 일

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 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두 사람은 5일 까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전격 선언했 다. 친노(親盧) 적자를 자처한 두 사람 은 단일화를 발표하며 "민주당 적통 후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참여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냈고, 이 의원은 청와대 국 정상황실장을 지낸 노 전 대통령의 핵 심 참모로 꼽혔다.

서선옥기자

與, 윤석열 출마선언 연일 맹폭… "범 내려온다더니 새끼 고양이"



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 해 "범이 내려온다고 해서 봤더니 보니 새끼 고양이였다"며 "초등학교 전교회장 출마 선언도 이렇게 허술 하지 않다"며 맹폭을 이어갔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창원 경 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과 경남도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 한 뒤 "오죽하면 기자들이 계속해서 윤석열이 대통령 돼야 할 이유가 뭐 냐고 반복해서 물었겠냐"며 "겉도 부실하고 내실도 볼품없는 외빈내 빈의 극치"라고 평가절하했다.

강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행 보를 보며 기시감을 느낀다. 3년 전 2018년에도 윤봉길기념관에서 정치 "초등 전교회장 출마도 이렇게 허술하지 않아" 한일관계 언급에 "친일 발언" "역사인식 천박"

참여를 선언한 검사 출신의 공직자가 있었다. 그 분도 윤 전 총장처럼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몰아 갔다며 큰소리쳤다. 그러나 국민은 오히려 그 분을 심판했다"며 "바로 황교안 전 대표의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이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죽창가만 부 르다 이렇게 됐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원래 죽창가는 1894년 우금치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과 전 봉길을 위로하는 노래"라며 "천박한 역사왜곡 의식에 유감을 표명하고 동학농민 전봉길, 윤봉길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도 윤 전 총장이 한일관계에 대해 '과거사 는 과거사대로 하고 미래 세대를 위 해서는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고 발언한 데 대해 "친일 발 언"이라고 규정하면서 "대권에 도전 하겠다는 분의 역사인식이 천박하 다"고 가세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전언 정치를 끝내고 국민 앞에 선 윤석열 씨의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함량 미달"이 라며 "국가 비전과 철학은 찾을 수 없고, 오직 정부에 대한 저주로 점 철된 얄팍한 출마 선언은 태극기 부 대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 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왜 윤석열이어 야 하는지?'가 빠졌기에 다시 묻다. 도대체, 왜? 검찰공무원이 정치하 려 합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 면,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어 정쩡한 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왜 검찰공무원이 정치하 려 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몰 아세웠다. 김남국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출마행사에 대해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 그럼에 도 현장에서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현장에서 쓰러진 60대 남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은 뒷전인, 오직 윤 전 총장만을 위한 정치적 행사"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 터뷰에서 "검찰이 어떤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수장으로 자신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 망 각하고 오히려 검찰의 잘못을 마치 정권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화 법이 이해가 안 됐다"고 역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YTN 라디오에 나와 윤 전 총장 부인이 유흥업소 접객원 '쥴리'였다는 세간의의혹 제기에 대해 "들어봤다"며 "대선 후보라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의 친인척, 친구관계, 이런게 다 깨끗해야 한다"고 공세를 가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 사 제 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